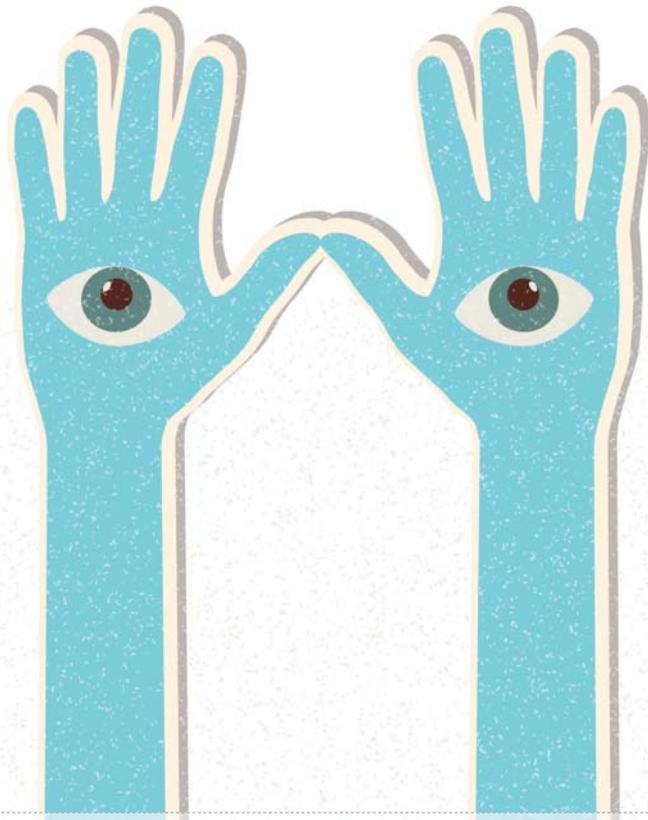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네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일까?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생여성병원을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생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 눈은 이미 몇 주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모양을 갖추었지만, 완전히 볼 때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지금은 내가 태어나고도 한참 지나야 엄마 아빠 처럼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나는 내 눈이 생기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다. 내가 수정된 지 22일째 되던 어느 날, 지금 나의 앞뇌 부분의 일부가 살짝 패이면서 안쪽으로 나의 신경세포들이 말려들어가더니, 각 부분의 세포들이 뿔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오르고, 저 멀리서 달려온 혈관들과 피부에서 다가온 눈꺼풀, 각막이 나를 보호해 주기 시작했다. 눈물샘이 생겼고, 눈을 뜨고 있을 때 각막을 보호해 주는 약간의 기름성분과 각막 뒤에 숨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렌즈인 수정체가 만들어졌다. 부드러운 액체인 유리체액이 어느 샌가 내 안구를 채우고 있었다. 이미 나의 뇌로부터 생겨난 망막에는 세밀하고 든든한 막대세포와 원추세포가 앞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뇌의 시각 중추로 보내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소리는 잘 들리는데, 보이는 건 별로 없다. 약간 어둡고 조용했던 엄마 배 속에 있다가 밝고 시끄러운 세상에 나오니, 정신이 없다. 눈앞에 있는 어른 손가락만한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이다. 앞으로 한 두 달 후에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체도 구별할 수 있고, 색깔도 구분 하게 된다고 한다. 신난다. 3개월 정도 되면 사물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눈이 동시에 하나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니, 어서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은 내가 사물을 잘 주시하고 있으며 안구에 사시형태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신다. 옆에서 태어난 친구는 아직도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태어나고 7개월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력발달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잘 자라서 6살인 지금은 어른과 동일한 정도의 시력을 가지게 되었다. 어제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엄마가 사주지 않아서 엉엉 울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되었다. 내 눈물샘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엄마 배 속에서는 약 6개월 때까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이 눈꺼풀이 붙어 있었다. 7개월이 지나고서야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샘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울면서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까? 울면 항상 눈물이 나오는 걸까? 태어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샘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자 성숙한 눈물샘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여 조금만 울어도 눈물이 흘렀다. 이미 제3뇌신경과 제7뇌신경 등이 힘을 합쳐 눈물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적인 자극을 받아 울지 않더라도 매일 약 1.2ml 정도씩 분비되어 각막의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눈물은 98%정도의 물과 알부민, 글로불린 염분 등을 함유한 약

알카리성의 액체로 눈으로 들어오는 병균들을 막아주는 항균작용을 한다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다. 비록 내가 아직 어리지만 이것만 이 눈물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더 커야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년이 된 나를 축하해 준다. 20년 가까이 보고 싶은 것, 보고 싶지 않지만 보이는 것, 봐야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다. 그동안 유행성 결막염, 경미한 각막 손상, 난시 등으로 너무나도 괴로웠다. 모래가 눈에 들어간 것 처럼 따가울 때도 있었고, 혈관총출 때문에 빨개진 눈을 바라보며 무서웠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다 지난 일이 되었다.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 지금은 양쪽 시력이 1.5 정도로 좋은 편이다. 나의 미래도 이렇게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 비교적 눈이 좋았던 나는 50대를 향해 가면서 변화가 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몸에서 비교적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기관 중 하나가 눈이라고 하더니,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던 것이 그렇게 되니 답답하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은 수정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원근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노안이 온 것이다. 지난 4,50년 동안 수고한 수정체에게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 준 수정체를 격려해 주고 싶다.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약해졌다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면 시력은 만 20세를 전후하여 고정된다. 노안은 시력검사시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시력은 여전히 1.2 정도이다.

이제 이순을 지나 칠순을 향하고 있다. 배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보고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것들을 봤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눈을 부릅뜨고 살았던 적도 있었고, 여러 군데로 눈을 굴리면서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눈을 크게 뜨기도 어렵고 눈을 굴리기는 더욱 어렵다. 나의 뇌신경은 아직 정상이지만 눈 주변의 근육들이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반드시 봐야 할 것들만 보며 살아가야겠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나보다. 주변부 시야가 없어진다. 쓸데없는 것을 보고 살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단순하게 살라는 뜻인가 보다.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신생아 시기의 눈이 성숙하여 그동안 수많은 삶의 기록들을 보아왔다. 각막이 보호해 주고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고, 망막이 분석하여 뇌로 전달한 세상이 나의 현재를 만들어 왔다. 아무거나 보고 살지 말아야겠다. 각막과 수정체, 그리고 망막이 자랑스러워 할 것들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